

## 보 도 자 료

**세계는 지금 “그린” 열풍의 중심에 서있다.**

**세계최초 친환경 고속 전기어선 출시……**

(주)엘지엠(대표: 원준희)은 세계최초로 고속 형 전기어선을 개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선다.

이는 상용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가지고 여의도 서울 마리나 에서 고속전기어선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유류 및 각종오일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현실에서 고속 전기어선은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없애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내연기관의 성능을 뛰어넘는 고속, 고출력, 미 소음을 실현 하였다.

이번 발표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LGM의 카트리지 배터리 시스템(CBS : Cartridge Battery System) 기술이다.

전기 동력시스템에서 늘 제기되어 왔던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특허기술을 통하여 해결한 것이다. 즉 현재 어선의 주유시스템처럼 충전 된 배터리를 신속하고 쉽게 교체하여 원하는 주행 거리 만큼 적절한 수량의 배터리 탑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또한 전기충전비 + 렌탈비 를 합해도 기존 유류 비 대비(면세유기준) 30%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을 가능토록 하였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선의 동력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어선을 전기동력 전기어선 보급활성화를 추진한다면 환경개선 및 어촌경제에 높은 부가가치가 예상되며, 국내외 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주로 근거리 연안에서 양식용이나 낚시용으로 이용되는 3톤 이하의 어선은 현재 약 6만 척으로 추산되며, 그 중 50%정도의 전기어선이 보급 된다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의 수입비용을 대체 할 수 있다.

전기 어선의 상용화에 대하여 원준희 대표는 “그 동안 비교적 높은 배터리 가격으로 대부분의 전기 동력 운송수단의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주)엘지엠은 배터리 스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초기에 낮은 부담금으로 전기어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업활동으로도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기어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간 지원해 온 면세유 보조금 등을 일부 전환하여 노후 된 어선을 전기어선개조 사업에 지원한다면, 빠른 보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민의 경제적 압박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엘지엠의 전기어선 성능을 살펴보면 이러한 실현화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길이 8.5m, 중량 2ton급 어선에 있어, 20knots(38km/h)이상의 최고시속을 달성하였으며,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소음과 진동도 현저히 낮아 어민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 된 제품의 출력은 완성품으로서는 5kW / 10kW이며, 기존 내연기관의 개조시장을 목표로 80kW 제품이 개발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는 레저 및 어선용 30kW / 60kW와 고급 요트용 300kW 선내기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WTO의 자율경쟁 원칙에 따라 면세 유 지원중단 압박 속에서 2015년경이면 더 이상 어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전기어선의 상용화가 실현된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현격히 해소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엘지엠은 해양 동력추진 시스템 분야의 벤처기업이며, 고속 전기차 R&D기업인

㈜레오모터스(대표: 최정열)의 자회사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E-box라 명명한 ㈜레오모터스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도 선보였는데, 포터블 형 500Wh부터 1kWh/ 2kWh/3kWh 제품 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응용한 전기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이다. 특히 Solar cell을 활용, 전자제어를 통한 자동 충·방전과 보호회로 기능까지 포함 된 가정용 Solar E-box가 포함되어 창조경제의 대안 ‘ESS+신재생에너지 융합’의 정책방향을 실현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box를 응용하여, 냉동 시스템의 전기 동력화를 이루었는데, 연료 소비 율을 20%이상 절감시킨 Eleco 탐차도 관심을 집중 시켰다.

최정열 대표는 “세계는 지금 “그린” 열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레오모터스가 있고, ㈜엘지엠이 있습니다.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성 있는 제품을 꾸준히 보급,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만이 국내의 그린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결의에 찬 표정 속에 무한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속적인 전력불안 속에 국내에서도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지금,

㈜레오모터스의 E-box 시리즈는 이러한 현 상황의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msgm@leomotors.com](mailto:msgm@leomotors.com)